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헌법에 보이는 전통적 문화 요소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in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Cambodia, and Thailand

나희량*

Hee Ryang RA

I. 머리말

헌법은 국가 건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법체계를 비롯한 사회질서의 토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헌법은 근세 이후 형성되어 온 국민국가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표현한 전통적 문화 요소와 정체성을 포함한다. 특히 헌법 전문을 보면 국민국가 형성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온 국가(민족)의 전통적 문화 요소와 민족적 정체성이 현재적 의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표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국민국가의 형성은 16세기 서구 유럽국가들의 동남아시아 진출 이후 분할 점령과 식민지배에 의한 임의적 영토 획정이라는 외재적, 타율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의 분할 점령으로 현재와 같은 비교적 분명한 국경과 영토적 개념이 강제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민족의식과 고유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heeryang@pufs.ac.kr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전통시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형성되어온 고유의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전통적 문화 요소가 3국의 헌법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본 논문의 목적은 3국의 전통적 문화 요소가 현재에도 헌법을 통해 면면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이는 데 있다. 이들 국가 중 캄보디아와 태국은 과거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유사한 전통적 문화 요소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국가의 전통적 문화 요소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캄보디아와 태국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 국가의 전통적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 국민국가 형성과 존립을 위한 질서와 법률적 토대를 이루는 3국 헌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 나라들의 전통적 문화 요소가 어떠한 내용으로 헌법의 내용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3국의 헌법은 각국의 최근 개정된 헌법-베트남은 1992년, 캄보디아는 1993년, 태국은 1997년 개정-을 기준으로 하였다.²⁾ 헌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3국의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민국가 존립의 정신적·법률적 토대를 이루는 헌법이 단순한 근현대 이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전통적 문화 요소가 살아 숨쉬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결정체임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는 3국의 전통적 문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3국의 헌법에 나타나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4장 결론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다.

Ⅱ.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전통적 문화 요소

2.1. 베트남

베트남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전통이라

1) 전통시대는 주로 19세기 전후로 시작된 근현대사 이전으로 그 시기를 정의한다(최병욱 2006).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통시대를 거쳐 형성되어 온 문화적 특성들을 통칭해서 '전통적 문화요소'로 명명한다.

2) 태국의 경우 2007년 헌법이 개정되었지만 베트남, 캄보디아의 헌법 개정 시기와 큰 차이가 있어 비교적 같은 시기의 1997년 개정 헌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D 40년 쯤 자매의 중국(漢)에 대한 항전을 시작으로 하는 저항과 투쟁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베트남인들에게 외세의 침략 시 타협내지는 복종이 아닌 무력적 저항을 통한 자유와 독립의 쟁취라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각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³⁾ 베트남인들은 기원전부터 중국의 지배로 인해 타민족(국가)과의 차별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별성의 인식은 이후 중국의 지배에 항거하는 역사적 경험들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⁴⁾ 그리고 마침내 서기 939년 중국(唐)을 구축하고 베트남인에 의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다(Marr 1980). 이후 베트남에서는 여러 왕조가 교체되지만 이 왕조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등 외세에 대한 배타적 의식과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보이며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자주·독립의식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두드러진다.⁵⁾

베트남인들의 저항의식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진출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게 된다.⁶⁾ 이러한 저항의식은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주의 이념과의 접목을 통해 프랑스, 미국이라는 외세의 구축과 통일국가라는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⁷⁾

또한 베트남은 인근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도입하여 국가통치 체계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유교적 이념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였다(Marr 1980).⁸⁾ 이러한 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층의 유교적 통치의 결과 비록 ‘락’사회의 전통 등 기존 토착문화의 영향이 다분히 많이 남아 있지만 베트남 사회에 전반적인 유교적 가치 체계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중욱 2000; 김달중 외 1992). 충·효를

3) 이러한 저항의 역사를 통해 베트남인들에게 있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영웅들이 탄생하였는데 예를 들면 쯤 자매(AD 40~43), 응오 퀴엔(939~944), 레 러이(1418~1418)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베트남인들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화점이 되었다.

4) 중국의 베트남 지배는 BC 111년 한나라의 지배를 시작으로 AD 939년까지 천년 이상 지속되었다.

5) 베트남의 대표적 독립왕조로는 **李왕조**(1009~1225), **陳왕조**(1225~1400), **黎왕조**(1428~1788), **阮왕조**(1802~1945)를 들 수 있다.

6) 프랑스의 침입은 1858년 다낭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후 1833년 아르망 조약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7) 프랑스로부터는 1954년, 미국으로부터는 1975년 완전한 독립을 달성한다.

8) 베트남의 본격적인 유교화는 15세기 **黎왕조**가 적극적인 유교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조하는 유교적 이념은 마을 공동체 안에 안주하여 있던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국가라는 더욱 확대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의식을 불어넣었으며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이것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이 국가일 것이다—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의식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조흥국 1997).

이와 같은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은 저항과 투쟁의 전통적 문화 요소 속에서 형성된 타자(他者)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후 베트남인들이 외세를 배제한 독립된 민족국가를 성취하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현재에도 그들의 의식 속에서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조흥국 199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캄보디아, 태국의 불교 문화의 향유,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왕권의 인정, 그리고 외세에 대한 유연한 공존 및 타협 등의 전통적 문화 요소와는 상이한 것이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조흥국 1997).

2.2. 캄보디아 및 태국

캄보디아와 태국의 공통된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 문화 요소는 두 나라 모두 불교국가라는 점이다. 13세기에 스리랑카로부터 유입된 상좌부 불교(이후 불교)는 당시 태국의 수코타이 왕조의 람캄행 왕에 의해 도입되어 국가적 종교로 진흥되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전 국민적으로 기존의 대승불교와 힌두교를 대체하는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양승윤 외 1999; 김민정 외 1997). 이후 불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왕들에 의해 진흥되어 국가적, 국민적 종교로서 급속하게 저변으로 확대 되었으며 기존의 토착신앙, 힌두문화와 융합되면서 강력한 국가종교로 확립되게 된다. 이러한 불교의 영향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불교는 두 나라 모두 국민의 90% 이상이 신봉하는 국민적 종교로 두 나라 국민의 인생관, 가치관, 정서적 측면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사회의 도덕적,

문화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⁹⁾ 두 나라 국민들의 생활은 모두 불교적 의식이나 사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김민정의 1997).

다음으로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왕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은 모두 왕권 국가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캄보디아는 혁명적 변혁으로 인한 왕정 폐지 등 급격한 변화의 굴곡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시 태국과 같은 입헌군주국으로 복귀하여(1993년) 왕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¹⁰⁾ 두 나라 국민들의 왕권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경험과 왕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불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왕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대한 복종의식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모두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왕권의 강화는 크메르의 앙코르 제국에서 풍미하던 힌두문화의 데바라자(Deva-Raja) 의식에서 나타나는 神王(god-king)개념으로부터 기원한다. 이러한 神王의 왕권 개념은 캄보디아의 왕조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태국의 수코타이 왕조(1238~1438)를 거쳐 아유타야 왕조(1350~1767)에게 영향을 미쳤고 태국의 왕을 정점으로 한 통치체계의 형성에 그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Sardesai 1997).

태국의 경우 전통적 왕권개념에 이러한 데바라자 의식의 크메르적 전통과 더불어 수코타이 왕조의 3대 왕인 랑감행 왕(1279~1298)으로부터 비롯된 인자한 아버지(Phoekhun), 불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탐마라차로서의 왕의 역할이 내포되게 된다. 이는 왕에 대한 권위가 神王(god-king)으로서의 신적 이미지와 함께 인자한 아버지와 불법의 수호자로서의 인간적 이미지가 교차·융합되면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이러한 복합적인 왕의 이미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앙코르 제국의 몰락 이후 태국과 베트남 등의 인접 경쟁국에 의해 왕권이 좌지우지되고 더욱이 프랑스의 침략으로 독립을 상

9) 태국의 경우 태국 국민의 95%, 캄보디아의 경우 90%가 불교를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외교통상부 세계각국편람 1998).

10) 1970년 론놀의 쿠테타로 군주제는 폐지되었고 이후 캄보디아는 크메르공화국시기(1970~1975), 민주 캄푸치아 시기(1975~1978)를 거치면서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게 된다.

실하는 등 왕의 권위가 실추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하누크 왕이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도 정치권력의 핵심적 인물로 남아있고 1993년 이후 입헌군주국의 국왕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경우에도 1932년의 무혈혁명으로 비록 실질적인 왕권이 상실되고 입헌군주국으로 정치체제가 바뀌었지만 이후에 태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왕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위상은 유지되었고 정치적 이슈의 최종 결정시 왕의 선택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¹¹⁾ 이렇게 왕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전통적 문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문화 요소의 하나는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고자 강대국의 부침에 편승하여 줄타기식 정치·외교 노선을 취해왔음을 들 수 있다. 물론 캄보디아는 앙코르제국의 몰락 이후 태국과 베트남의 양대 세력에 의해 국가적 독립이 위협받고,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의해 결국에는 독립을 상실되었던 반면 태국은 탄력적인 정치·외교적 노력으로 독립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상반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배층의 개혁의지와 통치능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했지만 태국을 완충지역으로 하자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타협에 의해서도 결정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독립의 상실과 유지라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만 두 국가가 취해 온 정치·외교적 노선은 기본적으로 강대국을 우선하고 주변 정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그들의 정치·외교적 노선을 결정했다는 면에서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이것은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당연한 산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1) 1992년 5월 짬롱 방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쑤찐다 수상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푸미폰 국왕의 중재로 쑤찐다 수상은 사임하고 정국은 진정되었다(Sardesai 1997, 263-264).

12)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 태국의 수상이었던 피분 송크람은 각료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전쟁에서 어느 편이 패하리라 생각하는가? 패배하는 쪽이 바로 우리의 적일세."(Sardesai 1997, 186) 이것은 태국의 탄력적 내지는 기회주의적 외교를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태국은 독립의 유지와 국익에 최대한의 유익이 되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지속적인 외세의 간섭과 정권의 교체, 내전 등의 불행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Sardesai 1997). 현재에 이르러서는 태국은 기존의 대나무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비동맹 중립주의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전통적 문화 요소의 시대적 결과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³⁾

Ⅲ. 3국 헌법에 보이는 전통적 문화 요소

3.1. 베트남 헌법

1992년에 개정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은 전문과 12장 147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급진적 정치체제의 변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트남 헌법은 다분히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트남 헌법안에서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 전통적 문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 전통적 문화 요소의 첫 번째는 외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문화 요소는 베트남 헌법에도 잘 드러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역사는 수세기동안의 중국 통치, AD 939년 독립을 성취한 후에도 중국, 참 등 인근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된다. 프랑스 등 서구 유럽의 식민 지배가 본격화된 19세기 중반 이후 베트남인들의 외세에 대한 저항, 투쟁의식은 강화되어 갔고 민족, 국가의식의 형성과 더불어 외세에 대한 배타적·무력적

13) 1988년 태국의 차차이 수상은 “현재 국제정치적 상황은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 독립적, 불간섭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국의 미래와 운명을 위해서는 약화되어 있는 현재 태국외교정책의 일면을 경제우선주의로 전환하여 국제정치면에서 점진적인 완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태국외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한국태국학회 편 1998).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와의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미국과의 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베트남인들의 의식에는 조국을 침입하는 외세에 대한 강한 배타적 투쟁의식이 각인되어졌다. 이러한 저항과 투쟁의식은 베트남 헌법에서도 볼 수 있다. 먼저 헌법 전문을 보도록 하자.

수 천 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오래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이하 생략)

우리는 위 전문의 내용들 중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불굴의 강인성’,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등의 구절들에서 베트남인들의 저항과 투쟁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항과 투쟁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현대의 베트남 헌법에서도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의 측면을 살펴보자. 베트남은 일찍이 지배층이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도입하였고 유교적 질서에 입각한 통치, 정치체제를 확립해 나갔으며 불교국가였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상이하게 유교적 국가로 변화되었다. 충·효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교적 이념은 베트남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반영되었고 이러한 국가(왕)에 대한 충성의식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과 맞물려 한층 강화되어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은 베트남 헌법에도 잘 드러난다. 위에서 살펴본 전문에서 ‘인의(仁義)’라는 유교적 가치개념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또한 제 13조에서는 “베트남 조국은 신성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4장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편에서는 베트남 조국방위와 국가안녕 유지를 전 인민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를 위한 인민의 충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인민의 충성의무는 곳곳에서 나타난다.¹⁴⁾ 이와 같이 베트남인들의 유교적 충성의식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현대의 헌법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헌법은 비록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제정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한시대의 이념을 뛰어넘는 전통적 문화 요소의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3.2. 캄보디아 헌법

1993년에 제정된 캄보디아 헌법은 전문과 14장 139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문 및 헌법 조항 중 위에서 언급한 캄보디아의 전통적 문화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태국과의 공통된 전통적 문화 요소뿐만 아닌 앙코르에 대한 기억과 평화에 대한 염원 등 캄보디아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고유의 전통적 문화 요소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캄보디아 헌법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캄보디아 국민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자고한 광휘와 훌륭한 문명으로 변영하고 번성한 영광스러운 국가를 건설한 전통을 이어왔음에도 지난 20년 동안 비통 속에 국운이 기울어지고 고통과 파괴를 겪고 심히 쇠약해져왔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 국민은 결연히 결집하여 국민적 통합의 결속, 캄보디아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훌륭한 앙코르 문명의 보존과 방어, 그리고 법을 지키고 책임을 갖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수 자유민주정권에 의거하여 캄보디아를 평화의 섬으로 복원하는 데 모두 함께 결심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을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으로 새긴다.

위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캄보디아인들의 고유한 전통적 문화 요소인 앙코르 제국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볼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은 9세기 이후 수세기동안 동남아시아

14) 제76조. 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 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 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안녕 보호,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국가기밀 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지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이었던 앙코르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이 앙코르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역량은 인근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431년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의 침공으로 앙코르가 함락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앙코르 제국은 이후 태국, 베트남 그리고 프랑스라는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왕조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였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캄보디아인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져 갔다. 19세기 이후 캄보디아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의식이 강화되면서 앙코르는 다시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민주캄푸치아 시기(1975~1978)에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노동력의 강제적·집단적 동원을 통한 현대판 앙코르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극단적인 시도도 이루어졌다(양승윤 외, 1999). 이러한 시도는 참담한 결과만을 낳은 채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평화를 되찾았다.¹⁵⁾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전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앙코르의 영광은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역사적인 경험이자 유산으로, 다시 재건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문화 요소가 헌법의 전문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헌법 전문의 ‘평화의 섬’이라는 표현을 통해 캄보디아인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태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외세에 대한 간섭과 전쟁이 잦았고 1953년 독립 이후에도 민족주의자, 왕권주의자, 사회주의자 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마침내 크메르루즈에 의해 수백만의 인구가 학살당하는 민족적 비극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후 베트남에 의한 침공 그리고 정권의 불안정과 정파 간의 내분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염원이 되었다. 헌법 전문의 ‘캄보디아를 평화의 섬으로 복원하는데 모두 함께 결심하면서’ 라는 내용은 이러한 캄보디아인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불교, 왕권, 중립적 외교노선 등과 같은 태국과

15) 민주캄푸치아의 통치기간동안 대속청으로 알려진 대학살이 진행되었다.(1975.4.17-1977.1.1 사이에 적어도 120만 명이 처형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80년의 통계는 200만명 정도, 1986년 조사에서는 610만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양승윤 외 1999)

중첩되는 캄보디아의 전통적 문화 요소에 관련된 헌법 내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먼저 불교국가로서의 전통적 문화 요소의 측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왕국의 좌우명을 ‘국가, 종교, 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불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왕을 선정하는 왕권왕립위원회를 이루는 6명 중 2명이 불교종단의 종정(마하니까야派와 담마유투트派의 종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또한 캄보디아에서 불교의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불교를 국가종교로 명시적으로 규정(제 43조)하고 있으며 국가는 팔리어 학교와 불교교육기관을 보급하고 발전시킬 것을 명시(제68조)하고 있다.¹⁷⁾ 이처럼 캄보디아는 현대에도 명시적으로 전통적인 불교국가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의 진흥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왕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1장 ‘주권’편에서 캄보디아를 왕국으로(제 1조), 제 2장 ‘국왕’편에서 캄보디아 왕국의 좌우명은 ‘국가, 종교, 왕’이라고 규정(제 4조)하고 있어 왕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 2장 ‘국왕’편은 전체(제 7조~제 30조) 조항이 왕과 관련된 조항들로 입헌군주제 정치체제하에서의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왕권의 특성과 왕위 계승 등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왕을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영토의 보증,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자, 국제조약의 보증인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정서인 *patron-client*관계에서 *patron*으로서의 왕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김달중 외 1992). 그리고 국왕은 왕실의 일원(웅두영 왕, 노르돔 왕, 씨소왓 왕의 혈통의 후손) 중 왕권왕립위원회가 선정하는데 역사적으로 왕의 독단적 지명에 의한 장자계승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의 왕권 계승의 특징을 볼 수 있다.¹⁸⁾ 이와 같이 우리

16) 캄보디아의 승단은 크게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마하니까야派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담마유투트派로 나뉜다.

17) 팔리어는 남인도의 언어중 하나로 소승불교의 경전이 이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현재까지도 팔리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18) 웅두영 왕(1846~1860)은 노르돔 왕(1860~1902)과 씨소왓 왕(1902~1927)의 아버지이다.

는 캄보디아의 헌법안에서 왕권과 관련된 전통적 문화 요소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의해 정권의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캄보디아로 하여금 강대국들의 부침에 따른 줄타기 외교정책을 강제하게 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반복되는데 론놀 정권과 미국, 크메르루즈와 중국, 헝삼린·훈센정권과 베트남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캄보디아 정권은 시대적 정황과 강대국들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외교적 노선을 취하며 이러한 외교적 노선의 특성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립적 비동맹 외교의 노선을 추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는 독립적, 자주적, 평화적, 영구 중립적 비동맹국가로 자신을 규정(제 1조)하며 제 53조에서는 캄보디아 왕국은 영속적인 중립과 비동맹 외교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여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많은 간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역사적 성찰과 고뇌의 결과가 중립적 비동맹 외교의 모습으로 헌법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전통적 문화 요소는 헌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3. 태국 헌법

1997년에 개정된 태국의 헌법은 전문과 12장 33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헌법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헌법에 비해 조항수가 배 이상 많지만 전통적 문화 요소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캄보디아의 헌법에서 보이는 왕, 불교에 대한 존중과 진흥이라는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과거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공존해 온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태국의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생략)… B.E. 2539년 헌법 개정(제 6조에 근거)에 따라 B.E. 2543년 국회에서 선출된 99명의 의원들은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한 새 헌법 초안을 준비하는 의무를 부과 받았다. 헌법 개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왕 폐하의 관대하신 축복을 통해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의원들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를 이루기 위해 헌법 초안을 준비하였다. …(생략)… 이 헌법 초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 결의와 국왕 폐하의 존엄하신 허락을 받아 B.E. 2543년 12월 9일 이 헌법을 공포한다…(생략)…

위의 전문의 내용을 보면 헌법 개정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왕의 추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국의 모든 법률의 근거와 정부의 정통성이 왕의 인정과 추인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어 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태국인들의 왕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존중 의식이 헌법 전문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왕권에 대한 존중은 수코타이 왕조의 랑캄행 왕 시대 이래 태국 역사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현재에도 왕의 권위(비록 정치적 실권은 상실하였지만)에 대한 태국인들의 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 2장 왕편(제 8조~제 25조)에서는 왕에 대한 헌법 조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추밀원의 역할 등 왕에 대한 보좌에 대한 내용과 왕의 유고시 왕위계승과 섭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태국의 헌법에서도 캄보디아의 헌법에서와 같이 왕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불교에 대한 전통적 문화 요소는 캄보디아와 같이(불교를 국교로 규정하는 것 등)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문에서 서기 대신 불기를 사용하고(예를 들면 A.D. 1996년 대신 B.E. 2539년을 사용) 왕이 불교 신자, 불교의 보호자여야 한다고 규정(제 9조)함으로써 불교 국가의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불교와 그 밖의 종교를 진흥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제 72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 54조에서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경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¹⁹⁾ 이는 태국의 전통사회의 후

¹⁹⁾ A person who is over sixty years old of age and has insufficient income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aids from the State, as provided by law.

견-피후전(patron-client) 관계에서 비롯된 연장자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전통이 현대에 계승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센터 편 199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태국의 헌법을 통해서도 태국 전통적 문화 요소의 면모들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의 헌법에서 보이는 역사전통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태국의 헌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V. 결 론

위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동남아 3국의 전통적 문화 요소를 살펴보고 전통적 문화 요소의 시각을 통해 3국의 헌법을 분석해 보았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태국과는 달리 외세에 대한 거침없는 저항과 투쟁,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우선이라는 전통적 문화 요소를 보이는 데 비해 캄보디아와 태국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왕에 대한 존경과 왕권에 대한 복종,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불교국가로서의 전통 그리고 외세에 대한 탄력적 내지는 기회주의적 정치·외교 노선의 전통적 문화 요소를 보인다. 이러한 전통적 문화 요소의 상반된 모습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인들이 겪어왔던 상이한 역사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서로 다른 가치체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문화 요소는 3국의 헌법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태국의 헌법은 양국 간의 밀접한 역사적 상호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급변하였으며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내전과 대량학살, 정권의 잦은 교체 등이 두 국가에서는 전통적 문화 요소의 흐름이 단절 내지는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헌법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문화 요소의 요소들이 힘차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 문화 요소의

흐름은 결코 한 시대의 정권이나 이념에 의해 쉽게 단절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통적 문화요소, 헌법, 불교, 왕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참고문헌

- 김달중 외. 1992.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의 정책』 서울: 법문사.
- 김민정 외. 1997.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서울: 오름.
- 김중욱. 2000. 전(前)근대 베트남의 촌락 정치 문화.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밀턴 W. 마이어. 1994. 『동남아시아 입문』 김기태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기식. 1997. 『캄보디아를 아십니까?』 서울: 삶과 꿈.
- 양승윤 외 7인. 1999. 『라오스·캄보디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오스카 베겔. 1997. 『인도차이나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조흥국 역. 서울: 주류성.
- 외교통상부. 1998. 『세계각국편람』 서울: 외교통상부.
- 유인선. 1984. 『베트남사』 서울: 민음사.
- 최병욱. 2006.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세계인의 의식구조Ⅱ』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한국태국학회. 1998. 『태국의 이해』 한국태국학회 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베트남 헌법(1992)
- 캄보디아 헌법(1993)
- 태국 헌법(1997)
- Chandler, David. 1998. *A History of Cambodia*. Bangkok: Silkorn Books.
- Marr, G. David. 1980. *Vietnamese Anticolon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Steinberg, J. David, ed. 1989. *In Search of Southeast Asia*. Sydney: Allen & Unwin.
- Sardesai, D. R. 1997. *Southeast Asia, Past & Present*. Boulder: Westview Press.
- Royal Thai Embassy. 1995. *Khmer-Thai Cultures : The Inseparable Ties*. Phnom Penh.

<Abstract>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in the Constitutions of Vietnam, Cambodia, and Thailand

Hee Ryang RA

Assistant Professor,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eryang@pufs.ac.k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of Vietnam, Cambodia, and Thailand and above this we try to find out the evidences that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are shown up through the Constitutions of three countries. First, for Vietnam, unlike the other two countries, we could find out the traditional culture feature of strong resistance and struggle against the foreign powers like China throughout the history. Also, the loyalty for the community and country could be added as the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as well. In contrast, for Cambodia and Thailand, we could see other aspects of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such as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Buddhism, historically sustained Kingship and respect for the King, the opportunistic foreign policy for the foreign powers to national survive. Furthermore, we could find out the evidences that these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are shown implicitly or explicitly in the Constitu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all. Although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experiences, cultures, and value systems, we could see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three countries show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are vigorously alive in it. Thus, we can say that this proves that the flow of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are not easily changed or stopped by an era or ideology and still alive in the heart of the people.

Key Words : Traditional Culture Features, Constitution, Buddhism, Kingship, Vietnam, Cambodia, Thailand